

믿음 지혜 ...	<h1 style="margin: 0;">BUDDHANARA</h1> <p style="margin: 0;">부다나라 (불국사)</p>	FAITH WISDOM ACTION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시 : 새해 법회 및 새로운 찬불가 배우기
 셋째주 일요일 11시 : 전법기도법회, 교리탐구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 오전 11시-오후 1시

Pinckneyvill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5

부다나라(불국사) 후원회 -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9am. (매주 토요일 9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Every Tuesday 6:30 pm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Evening Chenting & Meditation

Intensive Meditation: Jan. 25 (Tuesday) 7:00 PM - 10:00 PM

이달의 법구경

현자는 모든 것 참아내는 땅처럼

침착하고,

현자는 굳건한 기둥처럼

안정되고,

현자는 호수처럼

맑고,

그래서 현자는

생사 있는 윤회(Samsara) 영원히 벗어나네.

He is calm like the earth that endures;
 he is steady like a column that is firm;
 he is pure like a lake that is clear;
 he is free from the Samsara,
 the ever-returning life and death.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옹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2011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조계종 법전 종정예하 신년법어 : “무진번뇌가 하나의 원광이 될 것”

오늘 천고(千古)의 광채가 신묘년(辛卯年)의 새해 아침을 장엄하니 집집마다 무생복락(無生福樂)의 문(門)이 열립니다.

하늘은 천기(天機)를 움직여 온화한 기운을 내리고 만물(萬物)은 신령함을 얻어 환희의 눈을 뜹니다.

산하대지(山河大地)는 제 몸에 아름다움을 풀어내어 화엄(華嚴)을 이루고 일초일목(一草一木)은 깨달음의 빛과 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슴에는 만법(萬法)과 질푸른 하늘이 잠겨 있고 그것을 풍진(風塵)속에 나투는 기용(機用)을 각자(各者) 갖추고 있으니 치우친 이는 자신을 바로 잡아 원만(圓滿)함을 이루게 하고 막히고 걸린 이는 일승(一乘)으로 나아가는 길을 얻게 합니다.

집착해 있는 사람은 비움을 통해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고 탐욕에 사로잡힌 자는 내려놓음을 통해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이니

오늘의 고통을 이웃에게 자비(慈悲)로 활용(活用)한 사람은

무진번뇌(無盡煩惱)가 하나의 원광(圓光)이 될 것입니다.

놓아버리면 여러분의 가슴에 일월(日月)이 빛을 발 할 것이요.

거두어 베풀면 무진중생(無盡衆生)이 평화(平和)로울 것입니다.

불기 2555(2011)년 1 월 1 일 원단(元旦)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행복은 나만의 행복일 수 없다. 내 이웃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오만과 독선은 겸양과 소통을 이길 수 없다. 우리 모두가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으로 화합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편견과 집착으로는 세상을 치유할 수도 구원할 수도 없다. 각자위정(各者爲政)의 자세를 버릴 때 세상이 평화로워질 수 있다.

우리 모두 지금 딛고 선 그 자리를 바로 보고 새롭게 한 걸음 내딛자. 그리하여 새해에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싹이 움트기를 기원한다.

토끼해 불교신문 제언 : “이천년 한국불교, 세계로”

커다란 태양이 떠오른다. 신묘년 지혜의 태양이다. 동쪽 바다를 뚫고 오른 태양은 한반도를 비추고 동북아를 넘어서더니 금세 五대양 六대주를 비춘다. 올해를 바라보는 한국불교의 모습이 그 태양을 닮았다.

무신정권이 들어선 고려 중기, 1011년. 몽고의 잇따라 침입에 민중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했다. 문화의 자부심이었던 황룡사 목탑은 이미 불에 타 없어졌다. 선조들은 무력을 앞세운 침입자들에 맞서 문화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대 역사를 시작했다.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 판각은 곧 우리 민족 우수성을 회복하는 작업이었다.

*팔만대장경 조성한 선조들 마음으로
수행하고 포교하며 세계인들과 소통*

천년의 시간이 흘렀다. 일본제국주의 시대, 6.25 민족전쟁을 넘어선 우리 사회는 급속한 성장을 거듭했다. 이제 경제규모로는 세계 10대 강국이다. 하지만 서구인에게 한국은 문화적 측면에서 볼때 빈국(貧國)일 뿐이다. 한때는 장로대통령에 의해 불교의 문화유산이 낡고 진부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21세기 들어서야 불교가 지니고 있는 유형적, 무형적 문화자산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했다. 천년을 이어온 승복에서 한국 복식의 미를 찾아내고, 정갈한 사찰음식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발견했으며, 산사의 풍경소리와

목탁소리에서 우리 민족의 가락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킬수 있는 문화자산임을 느꼈다.

불교신문은 올해의 기치를 '이천년 한국불교, 세계로'로 정했다. 한반도에 들어온 불교를 꽃피우고, 팔만대장경 조성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선조들의 마음으로 수행하고, 포교하면서 한국불교로 세계인과 소통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담은 문구다.

태양을 보자. 수억년 변함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한국불교도 저처럼 찬란히 떠오르길 서원하면서 한해를 연다.

[한겨레] 2010년 가신이들의 가르침: 당신들의 '실천하는 삶'을 따릅니다

지난해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데 이어 올해엔 유난히도 많은 종교인이 세상을 떠났다. '신드롬'까지 낳은 법정(1932~) 스님 외에도 '한국판 슈바이처'로 아프리카에서 봉사한 류강하(1939~) 신부와 이태석(1962~) 신부, '노동자들의 아버지' 도요안(1937~) 신부, 개신교 제자훈련의 선구자 옥한흠(1938~) 목사가 모두 올해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몸은 사라졌지만 그들은 우리 마음의 별이 되었다. 그들이 남긴 것은 길상사나 사랑의교회 같은 건물이나 <무소유> <울지마 톤즈> 같은 책·영화가 아니라 온몸으로 보여준 삶이었다. 과연 그들의 무엇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것일까. 그들이 남긴 정신을 네가지로 정리했다.

■ 진정한 부는 '자발적 가난'

법정 스님은 장례식조차 없는 간소한 다비와 저서 절판 선언으로 큰 충격파를 전해주었다. 그러나 그런 단절만이 충격을 준 것은 아니었다. 그가 열반한 이후 드러난 그의 삶의 실상이 더 진한 울림을 낳았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얼마든지 호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인세 수입의 대부분을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이들에게 보시했고, 자신은 순천 조계산 불일암이나 강원도 오지의 오두막에서 달빛과 별과 꽃과 다람쥐의 벗이 되어 안빈낙도(安貧樂道)했다. 도덕과 정의와 자비를 내팽개치고 욕망의 질주에만 박수를 보내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극으로 치닫는 한국 사회에서 그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그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대저택을 보시받아 길상사를 세웠지만 정작 그 자신은 단 하룻밤도 그곳에서 잠을 자지 않았고, 호흡이 끊어진 뒤에야 하룻밤을 보냈다.

미국 뉴저지주 출신으로 얼마든지 최고 선진국에서 부유한 삶을 구가할 수 있었던 도요안 신부는 1960년대부터 밀바다에서 신음하던 한국 노동자들의 가장 가까운 벗이었다. 무려 노동자 800여쌍의 주례를 서주기도 했던 그는 노동자들과 함께한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며 천만불의 평화로운 미소를 남겼다.

■ 권세를 향한 집착은 죄악

올해 강남 요지에 2천억원대의 거금을 들여 새성전 신축을 시작해 '메가 처치'(거대 교회) 논란을 일으켰던 사랑의교회를 일구었던 옥한흠 목사는 제자훈련의 선구자였다. 제자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훈련이다.

옥 목사가 남긴 감동은 '대형 교회'보다는 삶의 실천에서 기인했다. 대형 교회 목사들의 상당수가 자식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겨주는 교회세습을 하거나 지금도 자녀들의 권력·금력 다툼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그는 정년을 5년 앞두고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닌 오정현 목사에게 담임직을 인계했다. 한국목회자협의회 대표였던 그는 "세상의 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행한 우리의 죄악을 참회하고, 세상 권세와 결탁해 진리를 왜곡하고, 거룩함보다는 풍요로움을, 겸손함보다는 온갖 명예를, 섬김보다는 소유를 더 갈망한 죄악을 회개한다"는 참회록을 발표해 성찰의 분위기를 이끌었다.

■ 성당 밖에서 행한 '참신앙'

최근 정진석 추기경의 4대강 찬성발언 논란 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현실 참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올해 선종한 도요안·류강하·이태석 신부는 성당 안에서만 '신앙'하지 않았다.

그들은 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노동자와 농민, 아프리카 흑인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의사 출신인 이태석 신부는 지난 20년 동안 200만명이 사망한 내전을 겪은 남수단 역사상 최초의 브라스밴드를 만들어 '하느님의 사랑'과 '사랑의 위대함'을 지상에서 드러내고 갔다.

■ 종교의 벽 허무는 자비심

'개신교 장로'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종교편향 논란과 종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 스님이 열반한 뒤 전남 무안 초당대 문헌철 교수가 전해준 하나의 일화는 '종교 포교'보다 위대한 자비심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교고 2학년 때부터 법정 스님과 인연을 맺은 문 교수는 가톨릭 영세를 받던 날 목숨을 잃을 뻔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하느님에 대해 회의할 때 법정 스님은 "이런 아픔을 통해 더 성숙해져 더 큰 시련도 이겨내게 하려는 것"이라고 위로했고, 훗날 불교로 개종 의사를 내비칠 때 "천주님의 사랑이나 부처님의 자비는 풀어보면 한보따리"라며 신앙을 그대로 지킬 것을 권유해 가톨릭 신앙을 유지했다는 고백을 전해주어 포교보다 위대한 인간애를 보여주었다.

(한겨레 신문 12월 30일자에서 발췌)

■ 마음의 때를 버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쇠붙이를 두드려 단련하여 불순물을 버리고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은 정밀하여 좋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를 배우는 사람도 마음에 물든 더러움을 깨끗이 하면 그대의 행이 청정해질 것이다.”

어릴 적 내가 살던 남도의 시골에는 대장간이 마을마다 있었다. 달궜진 쇠를 두드려가며 연장을 만들어가는 솜씨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가마 속의 이글거리는 숯불이 좋아서 지루한 줄 모르고 구경하곤 했었다. 그럴 때면 대장간의 아저씨는 저리가라며, 자신처럼 살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을 빼놓지 않았었다. 쇠를 불에 달궜 부드럽게 하여 두드려다가 물속에 넣어 식히고, 다시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불순물을 정제함과 동시에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멀리서 찾지 않고 그 자체에서 구하는 이치는 이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얼음을 만들 때 물 속의 기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뿌옇게 탁한 얼음이 되고 만다. 이때 물속의 기포를 몰아내기 위해 공기를 주입한다. 실제로 주입된 공기가 작은 기포를 제거하여 투명한 얼음을 만들어 낸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감정을 풀어내기 위해 연극의 역설적 효용을 생각하였다. 극(劇)으로 선과 악을 연출해보임으로서 대리만족의 효과를 이끌어 내어 정서의 순화를 모색하였다. 우리는 이를 ‘카타르시스(catharsis)’라고 한다. 본래의 뜻은 ‘배변(排便)’으로 인위적 경험에 의한 감정의 정화를 뜻한다. 사람은 역풍을 거치면서 더욱 성숙하고 세상의 지혜를 깨닫는 경우가 많다. 인류역사에 좋은 책과 문장은 낙향을 하거나 문책을 당하여 근신하는 중에 얻어진 것이 적지 않다. 실제, 과거 정권의 실세였던 한 인사에게 들은 바로는 권세와 사람 속에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데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었다. 또 예를 들 수 있다. 요트라는 배는 역풍을 받으며 전진하기 때문에 역풍이 불지 않으면 역지로 역풍을 일으켜야 한다.

그 역풍을 ‘콘트라 벤티(contra venti)’라 한다. 사람에게는 절차탁마가 이런 과정이라 보면 된다. 이 같은 불편의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영혼을 성장시킬 수 없다. 인간세상에서는 고난에 직면하였을 때가 수양하기 좋은 시절이다. 공자는 제자인 안희를 일컬어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며 누추한 거리에 살아도 즐거움을 잃지 않으니 참으로 어질다”라고 칭찬하였다. 또 노자는 <도덕경> 첫머리에서 “항상 무욕(無慾)으로서 도의 오묘함을 보라” 하였다. 그 오묘함이란 미세함의 극치를 말한다. 만물은 미(微)에서 시작하여 나중에 이뤄지기 때문에 항상 욕심이 없이 비어 있으면 사물의 오묘함을 알게 된다.

이 장에서 부처님은 마음의 물들을 경계하셨다. 일본 에도시대의 하이쿠 작가인 무라카미 기조가 남긴 시 중에 이런 한 줄의 시가 있다. “먼 옛날부터 대(代)를 이어 갈아온 밭이구나.”

기름진 땅은 멀리서 봐도 두드러진다. 작금의 한국불교라는 산 아래 밭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기름지게 보일지 모르겠다. 나쁜 습성은 한 번 물들면 돌이키기 어렵기에 하는 말이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보경스님

나에게 괴로운 과보 있는가?

- ■ 내세의 지옥행보다 무서운 것

암수 두 마리 짐비들이 한 둥지에서 살면서 잘 익은 열매를 열심히 날라 들였습니다. 그런데 둥지가 열매로 꽉 찰 즈음, 오히려 둥지는 널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한 대기 탓에 열매들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 수비들은 암비들을 의심하면서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며 과일을 모아두었더니 어떻게 나 몰래 그걸 먹어 치울 수 있지?” 암컷 비둘기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난 하나도 먹지 않았어. 열매가 저절로 줄어들어서 자리가 나게 된 거야.” 하지만 화가 날 대로 난 수컷은 암컷을 부리로 쪼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토록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야?” 결국 수컷은 암컷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큰 비가 내리자 열매는 습기를 머금고 다시 불어나 예전처럼 둥지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수컷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녀의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수비들은 구슬피 울면서 그녀를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니? 어디로 간 거니? 다시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제 손으로 죽여 버린 뒤라 아무리 이름을 불러대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백유경> 95번째 이야기

환김에, 욕망에 눈이 가려 악행 저질러
산봉우리 깊은 그림자처럼 평생 드리워

우리들 범부중생은 착한 일만 하고 살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환김에 또는 욕망에 눈이 가려 무슨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뒤늦게 후회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릇된 일을 해서 그에 따르는 괴로운 과보를 받는 것이야 인과응보요, 자업자득이니 달게 받는다 쳐도 우리들 중생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내세의

지옥행과 같은 괴로운 과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현재, 그가 죽기 전까지 치러야 할 괴로운 과보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 사실 더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괴로운 과보는, 지은 죄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인가를 토론하고 있을 때면 언제나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괴로운 과보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처벌이 가해지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자신도 모르게 식은땀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은 죄가 있으니 누군가가 재판을 받고 벌금을 물고 형벌을 받는 소식을 접할 때면 마치 자신에게 지금 그런 형벌이 가해진 것처럼 불쾌해지고 씩씩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지은 죄가 있는 사람이 겪게 되는 세 번째 과보는 시시때때로 ‘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엄습하여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을 때나 혹은 잠시 쉬려고 의자에 등을 기대는 순간이면 그때마다 예전에 저지른 잘못이 생생하게 떠올라 그를 짓누릅니다. “마치 커다란 산봉우리 그림자가 저녁 무렵에 지상에 길게 드리우는 것처럼” 지은 죄가 있는 자는 자기 잘못의 그림자가 무겁게 드리우는 바람에 겁을 집어먹고 울부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꼭 그렇게 일을 처리했어야 했나?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너그러웠더라면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고 지금쯤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마지마 니카야> 129 번째 경 저물녘 마을에 산그림자가 길게 드리우면 그 쓸쓸한 풍경으로 하루를 마감하듯이 잘못을 저지른 이는 하루해가 저물 무렵 또는 인생의 황혼녘에 후회와 불안과 자책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 말고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암비둘기를 부리로 쪼아 죽인 수비둘기의 여생은 후회하고 그리워하며 자탄하는 일밖에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것처럼 괴로운 과보가 또 있을까요?

(불교신문에서 발췌: 이미령 /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BUDDHANARA TEMPLE (佛國寺) 신묘년 정초기도

천 개의 해가 떠서 비추듯
한없이 맑고 깨끗하신 부처님.
새해가 열리는 이 아침에 고요히 합장하고,
저희는 새 모습으로 발원합니다.

무한 공덕의 축복으로 태양은 떠오르고,
빛나는 생명 지혜, 끝없는 자비 덕성,
넘쳐 나는 희망과 용기의 햇살이
찬란히 펼쳐옵니다.

참 생명의 불성 공덕 드러내기 원하오며
저의 원력 더 큰 지혜와 자비로 빛내주옵소서.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 속에
희구하는 착한 일들 원만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불자님 가정과 좋은 인연 맺게 해주신 부처님 전에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국 중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에서 불기 2555년 (2011년) 2월 3일 목요일 (음력 1월 2일)에 기도를 입재해서 불기 2555년 (2011년) 2월 6일 (음력 1월 4일) 까지 신묘년 정초 기도를 봉행 합니다. 기도 회향은 2월 6일은 첫째주 일요일 초하루 기도 법회와 같이 봉행합니다. 신묘년 새해기도 올리신 모든 신도님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장애를 뛰어 넘어 무량한 복을 누리시길 축원 올립니다.
신묘년 정초 기도 동참비는 \$100.00 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옵고, 소원 성취 하십시오.

알아두면 유익한 불교 관계 홈페이지 주소:

불교 TV 방송: www.btn.co.kr

불교 라디오 방송: www.bbsi.co.kr

대한불교조계종: www.buddhism.or.kr

불교신문: www.ibulgyo.com; 불교포커스: www.bulgyofocus.net

불보종찰 통도사: www.tongdosa.or.kr; 법보종찰 해인사: www.heainsa.or.kr; 승보종찰송광사: www.songgwangsa.org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법회장소는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 5 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정기법회는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입니다.
주소는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Norcross, GA 30071 입니다.
- 11 월부터 애틀랜타 와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정기 법회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독송하고 친숙한 경전중 하나인 “천수경”을 강의합니다. 꼭 법회에 참석하시어 “천수경”을 다시한번 공부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 지금은 동안거 결재중입니다. 동안거가 해제하는 날까지라도 조금이나마 수행자의 마음자세로 향시 삼업(마음, 몸, 뜻)을 챙기고 욕바라밀과 팔정도를 수행의 근간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 2011 년 토끼해를 맞이 하여 불자님 가정에 가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부다나라에서는 정초기도를 봉행합니다. 기도는 신묘년 2011 년 2 월 3 일 9(음력 1 월 1 일) 기도를 입재해서 2011 년 2 월 6 일 첫째주 일요일에 기도 회향을 합니다. 2010 년은 전세계적으로는 경제가 더더욱 힘들었고, 대한민국 안팎으로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까지 까지 가세해서 서민들 삶을 더욱 힘들게 했던 한 해 였던 것 같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기도와 정진의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의 힘으로 모든 위기들을 이겨 냈으면 합니다.
새해에 기도 올리신 모든 신도님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장애를 뛰어 넘어 무량한 복을 누리시길 축원 합니다.
소원 성취 하십시오.
- 1 월 한겨레 포럼 문화강좌 안내: 1 월 24 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세인트루이스 소재 한겨레 저널 회의실에서 “미국 사회는 왜 불교에 관심 갖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다나라 주지 선각스님의 강연이 있습니다.
- 워싱턴대학 불학기 참선 안내: 부다나라 주지 선각스님 지도하에 1 월 21 일 오전 9시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장소는 추후 공지 하겠습니다. 워싱턴 재학 학생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신도님들의 관심속에 2010 년 12 월 18 일 한달빨리 가진 성도제일 참선 용맹정진을 가졌습니다. 바쁜 일정가운데에도 용맹정진을 함께 해주신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용맹정진을 통해 마음을 맑힌 불자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하고 매달 4 째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10까지 용맹 정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용맹정진에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신도님들은 잊지 마시고 4 째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법당에서 만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12 월 25 일 세인트루이스 송년회, 12 월 12 일 성락 권혁만 거사님 댁에서 애틀랜타 부다나라 송년회 파티가 있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 짓는 송년회에는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에서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된 한인회 이계송 회장님, 멀리서 오신 대한민국 주재 온두라스 오종민 영사를 비롯하여 많은 신도님들이 참석해서 2010 년 망년회 법회를 함께했습니다. 애틀랜타 부다나라 송년회 법회에도 법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신도님들이 음식과 다과를 준비해 주시고 시간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2010 년 마지막 송년회 법회를 함께 해주신 신도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 2011 년 달력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근교나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에 사시는 신도님들을 제외한 타 지역에 사시는 신도님들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미주리주 지역과 조지아주 지역에 사시는 신도님들께서는 법회때 가져가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오시지 못하시는 신도님들은 따로 사찰로 연락 주시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 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부다나라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로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